

日本에 現存하는

高麗寫經

權 燾 耕

韓國은 悠久한 歷史와 傳統을 지닌 나라로서 그 文化 또한 찬란하나 半島라는 不利한 地理的 條件 때문에 끊임 없이 外勢의 侵略을 받아 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文化的 遺産은 燒失 或은 國外로 流出되었었다.

그중에서도 繪畫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해 高麗以前의 것은 高句麗 百濟의 壁畫以外에는 그 遺品을 찾아 볼 길 없으며 高麗의 繪畫조차도 그 數를 헤아릴 정도이다. 그러나 日本에는 놀랄만한 數의 高麗佛畫와 寫經, 李朝의 繪畫 등이 保存되고 있으며 作品들의 質에 있어서도 國寶 級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수이다. 이 중 佛畫의 경우는 日本의 熊谷宣夫 氏의 朝鮮學報四十四輯別刷「朝鮮佛畫徵」과 李東洲氏에 의해 一九七六年 七月 三日부터 三月二〇일까지 韓國日報에 연재된바 있는 「民族 繪畫의 發掘」에서 그 一部가 소개된 바 있으나 寫經의 경우는 日本내에 어떤 作品이 어느정도 산재해 있는지 具體的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一 高麗는 韓國歷史上 唯一하게 平和的으로 政權이 移讓된 나라로 新羅의 찬란한 佛敎文化를 그대로 계승하여 佛敎를 國敎로 삼아 出帆한 나라였다. 그런만큼 모든 政治·社會·文化란 佛敎의 影響속에 成

立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寫經은 이와 같은 佛敎文化속에서도 木版本の 八萬大藏經과 더불어 보다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高麗佛敎美術의 한 分野라 볼 수 있겠다. 高麗는 開國初부터 宋·遼·혹은 契丹으로 부터 大藏經을 수집하여 큰 절과 혹은 版經藏에서 이를 印刷하는 한편 다른 一面으로는 寫經院을 건립하여 金·銀字의 寫經제작에 힘을 기울여 國家와 王室의 榮達을 祈願했었다. 이처럼 王室의 安寧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던 金·銀字經의 제작은 忠烈王以後 즉 高麗가 元의 支配下에 있을 때 보다 盛行했었다. 그것은 마치 契丹과 蒙古의 亂을 당했을 때 木版 八萬大藏經을 제작했었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같이 기도불교에 의해 國家의 번영을 꾀했던 高麗王室의 八萬大藏經의 제작은 한편으로는 木版經으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金·銀字經이란 형태로써 나타났던 것이라고 본다①.

1 寫經의 起源

그러면 이와 같이 高麗朝에 크게 盛行했던 寫經의 起源에 關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寫經은 文字 그대로 佛敎經典을 손으로 옮겨 쓴 것으로 初期에는 廣宣流布에 그 目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寫經은 廣宣流布에만 그 意味를 局限하지 않고 寫成 그 自體에도 功德의 의미를 부여했었다고 본다. 現在 發掘된 印經의 遺品들로 미루어 봐서② 이미 八C경에는 木版印刷術이 상당히 발달되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다. 이와같은 木版印刷術의 發達로 寫經은 廣宣流布의 役割은 印經에 빼앗기게 됨으로써 功德의 意味만이 強調되고 自然히 紙本墨畫의 寫經은 紺紙 혹은 彩色紙 즉 染色紙에다 金·銀泥書의 장식성이 강조된 寫經으로 발달했으리라 본다. 이와 같은 發達過程으로 미루어 볼 때 新羅時代에 이미 紺紙金·銀字經이 제작되었다고 본다. 現在 서울國立中央博物館에 新羅때 것이라고 전해지는 紺紙 혹은 白紙金泥書의 寫經斷片이 있으나 이것은 확실한 年代推定이 어렵고 그 이외에는 現存하는 作品이 없어 알 수 없으나 現在 日本의 奈良時代의 遺品들로 미루어 봐서③ 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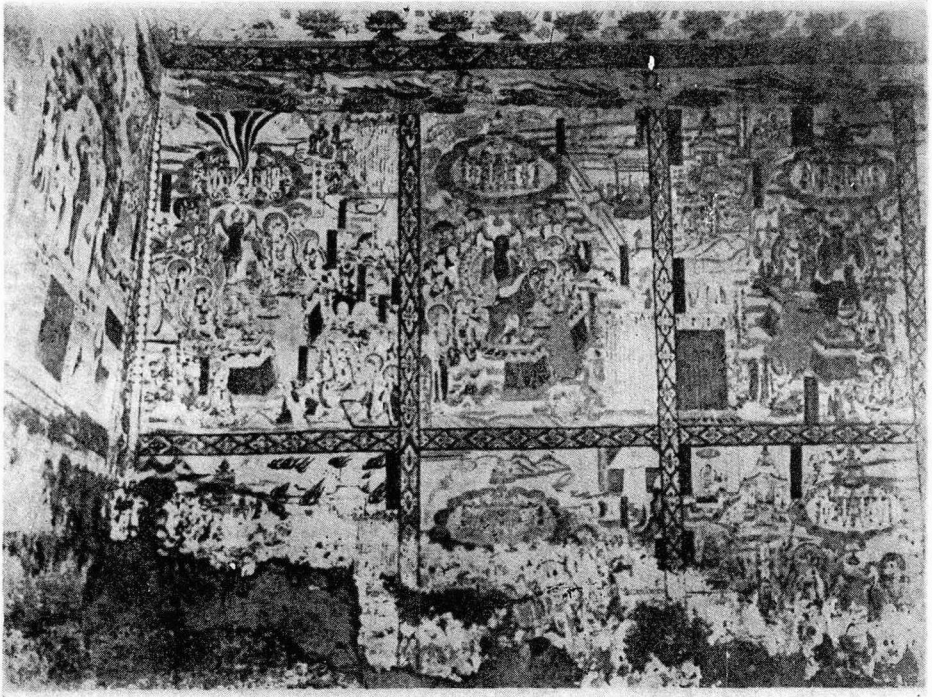


圖 1. 敦煌千佛洞의 벽화(法華經의 變祖)

羅時代에 벌써 상당한 수준의 紺紙 金·銀字經이 제작되었으리란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2 變相圖

高麗時代로 접어들면 이와 같은 寫經의 장식성은 더욱 強調되며 심세 화려한 變相이 折本 혹은 卷本の 앞머리에 그려지고 있다. 즉 이 같은 變相은 佛教經典의 傳說 혹은 說話의 情景를 描寫의 手段으로 그린 것으로써 그 起源은 멀리 印度에서부터 그 由來를 찾을 수 있으나 高麗寫經의 變相정우 그 起源을 中國에 두고 있다고 본다. 그 예로서 高麗寫經중 變相의 가장 많은 遺品을 남기고 있는 法華經과 敦煌의 法華經變相의 壁畫와 比較해 보더라도 그 「모티프」에 있어 많은 類似點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도 充分하게 想像할 수 있다④.

이 以外에도 高麗寫經의 變相圖의 樣式的인 特性은 얼굴모습의 풍요함과 衣文의 휘날림에서 보여지는 유연한 曲線描가 탱화에서 보여지는 그것과 大同小異하며 鐵線描와 打込·肥瘦線을 사용한 描法의 卓越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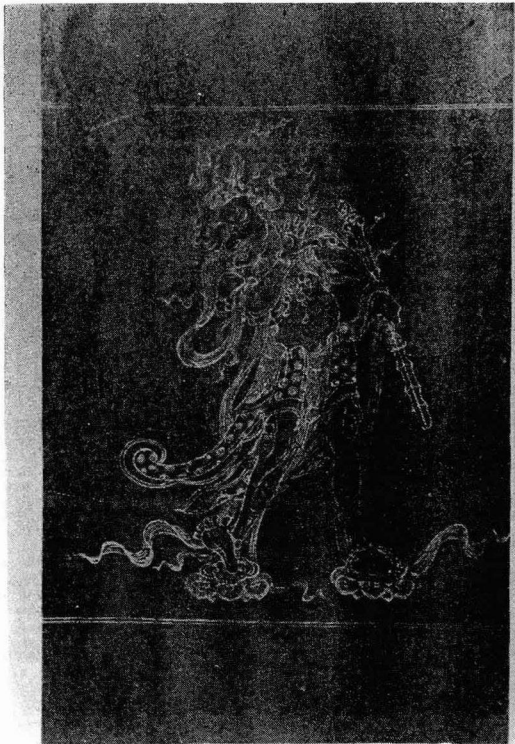


圖 2, 不空羂索眞言經(黃壽永藏)

獨特한 佛畫樣式의 하나로써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二 日本에 있는 高麗寫經들

1 大寶積經

이 「大寶積經」에 대해서는 日本의 大和文華館에서 發行하고 있는 「大和文華」五十號에 神田喜一部氏의 「中國의 裝飾經에 對해서」중에 소개되고 있는데 紺紙金泥의 裝飾經으로써 表紙에는 三人의 菩薩이 散華하는 形상으로 나란히 佛을 供養하는 멋진 變相이 그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奧書가 있다.

「菩薩戒弟子南瞻部洲高麗國應天啓聖靜德王太后 皇甫氏
大中大夫尙書左僕射判三司隴面縣開國男食邑三百戶 金致陽

同心發願寫成金字大藏經

統和二十四年七月 謹記 書者 崔成朔

初校花嚴了 眞炤世大師 曇昱
重大校花嚴業大師 緣密」

統和二十四年(一〇〇六)은 遼의 聖宗의 年號로서 高麗穆宗九年에 해당한다.

應天啓聖靜德王太后皇甫氏는 高麗 第七代王, 穆宗의 生母이며 金致陽은 皇甫氏의 情夫로서 『高麗史』에 의하면 皇甫氏는 金致陽과 內通하여 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하여금 穆宗의 뒤를 잇게 하려다 穆宗十二年(一〇〇九)에 政變이 일어나 穆宗과 金致陽이 살해되었다.

「大寶積經」은 皇甫氏가 金致陽과 더불어 攝政하면서 天下의 權力을 掌握하던 때 그들自身の 榮達을 위해 제작되었던 작품이다. 이것은 忠烈王以後 많이 製作되었던 金·銀字院의 作品으로 思料되는 高麗國王發願의 金銀字寫經의 奧書와 그 形式이 많이 닮았다. 그런만큼 文宗十二年條에서 金·銀字의 寫經에 關한 記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별

씨 이와 같은 金·銀字寫經이 王室의 發願으로 寫成되었다는 사실이 高麗의 金·銀字寫經에 對한 熱意를 充分히 입증해 주고 있다.

2 文殊師利問菩薩經(圖3)

品質 紺紙銀泥

形狀 折本(원래는 卷本이던 것이 變形된 것으로 새로 만든 絹織의 表紙裏面에는 元來의 表紙였던 寶相華文이 一部 남아있다.)

變相圖 有

法量 縱二五·八センチ 한 「페이지」의 幅二五·八センチ로 總十二페이지 원래의 表紙의 남은 部分 一三·四センチ 한 「페이지」가 七行一行 一四字.

內書 文殊師利問菩薩經一名伽耶山頂經啟。

姚秦龜茲三藏鳩摩羅什譯

奧書 至元十三年丙子高麗王國發願銀字大藏

卷首書 金泥描·縱十九センチ 橫二八·一センチ

時代 一二七六年

所藏者 京都市小川廣己家

이 寫經은 『高麗史』에 의하면 金字院·銀字院의 活動이 가장 盛했고 또 한 寫經僧이 元에 징용 당해가거나 元의 將軍이 과전되어 와서 高麗의 寫經院에서 寫經僧을 독려해가며 부여시키던 忠烈王 때(註1參照)의 作品으로 高麗國王의 發願인만큼 의심할 여지가 없이 銀字院의 作品임을 알 수 있다. 現在 七行씩 나눠 折本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원래는 卷本이었던 것으로 새로 만든 絹裝의 表紙裏面に 남아있는 銀泥寶相華文의 원래 表紙의 一部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卷首書로써는 양손으로 金剛杵를 받쳐들고 서 있는 金剛力士가 그려져 있다. 이 金剛力士는 左向한 像으로 상투를 쫓은 머리 주위에는 火炎이 흠날리고 무서운 얼굴표정과 잘 발달된 다리 근육에서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이 근육이 잘 발달된 다리 아래로 두 발은 蓮華를 힘껏 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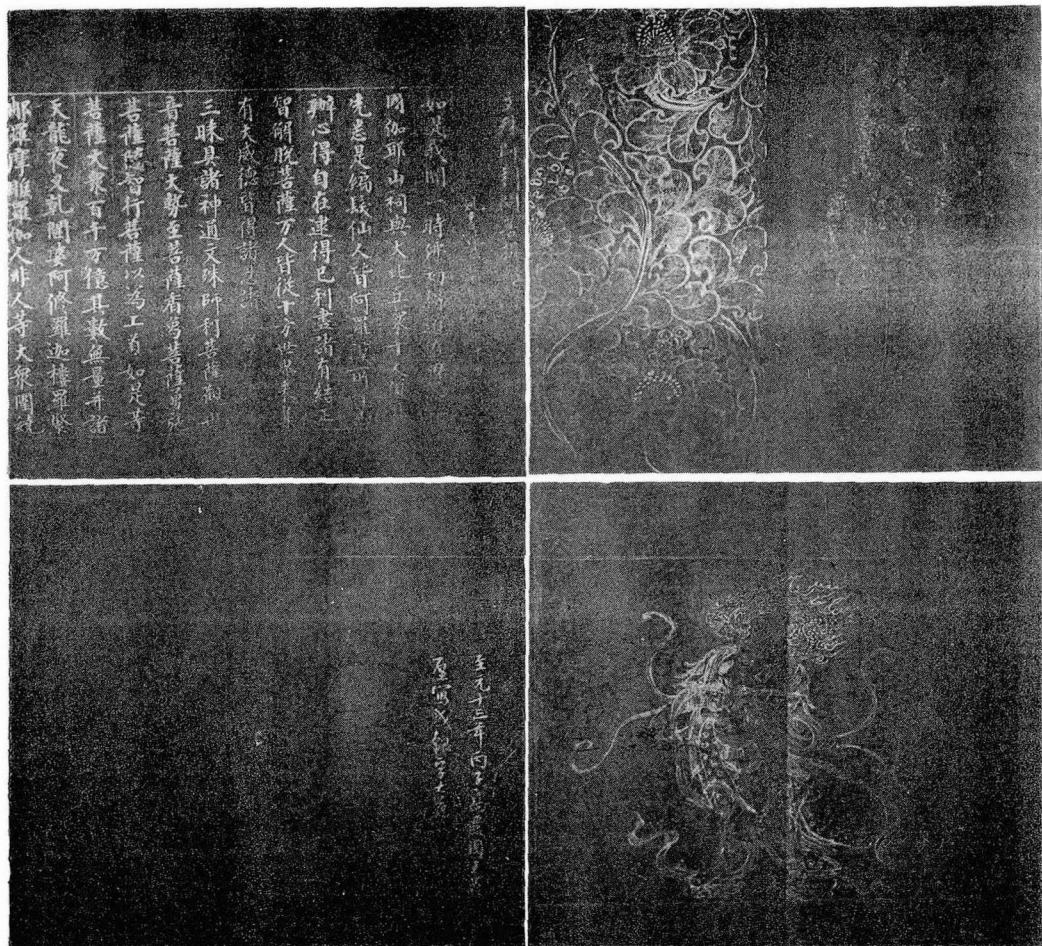


圖. 3 文殊寺 師利向菩薩經

고서 있다. 또한 양어깨에 걸친 天衣가 허리께로부터 크게 左右로 휘날리고 있다. 이 寫經은 한해 앞서 寫成된 같은 銀字院의 作品인 「不空羂索眞言經」(黃壽永博士所藏)과는 그 形狀에 있어 많은 點이 많다.

3 阿育王太子法益壤目因緣經(圖 4)

品 質 紺紙銀泥

形 狀 卷本·表紙는 銀泥로 寶相華文이 그려져 있다.

法 量 縱二九·五センチ 橫二〇·九〇センチ

內 書 阿育王息壤目因緣緣經第二張 禽阿育王太子益壤目因緣經第一卷

所藏者 日本國京都博物館

이 寫經은 表紙왼쪽 구석에 禽이라는 표시가 있고 表紙가 끝나는 부분의 裏面에 正奄이라는 佛名이 보이는데 이 正奄이란 書者가 아닌가 생각된다.

卷頭로부터 一七六センチ까지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筆致로 쓰여지고 있으나, 그以後로는 아주 溫和한 글씨로 쓰여지고 있어 두사람의 寫經僧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泰定二年乙丑四月日高麗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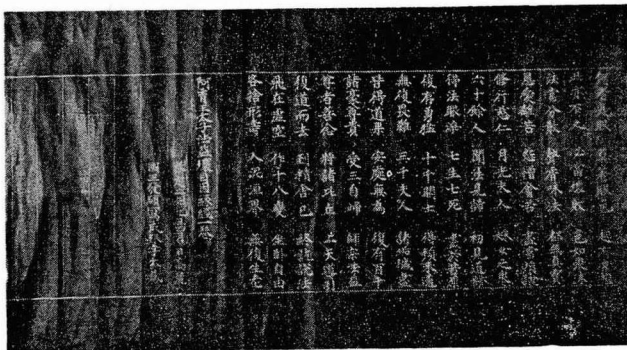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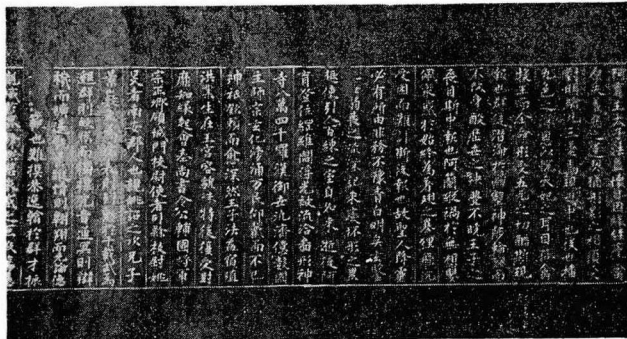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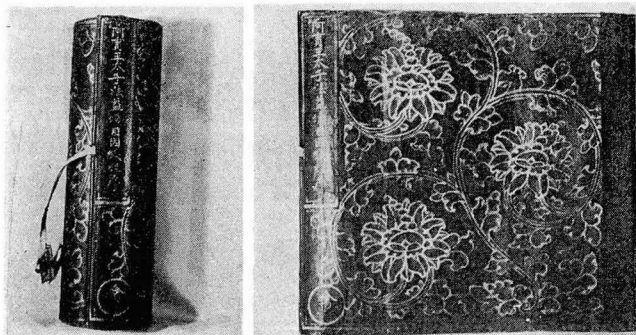


圖 4. 阿育太子法益壤目因緣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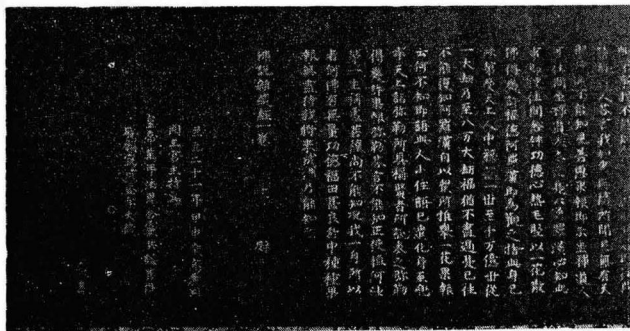


圖 5. 佛說雜經

4 佛說雜經一卷殘卷(圖 5)

品質 紺紙金泥

形狀 佛說雜藏經卷十六行과 奧書五行을 한쪽에 표구한것
奧書 佛說雜藏經一卷 十一齣

至元二十一年甲申歲 高麗國

國主 宮主特爲

皇帝萬年法界含靈共證菩提發願寫成金字大藏

禪師之護書

所藏者 個人(古書逸品展示大即賣會出品)

이 寫經殘卷은 忠烈王과 그王妃가 元의 世祖(忽必烈皇帝)의 長壽를 祈願해서 金字院에서 製作한 것으로 史料된다.

『高麗史』에 의하면 忠烈王때 金字院의 記錄이 많이 보이는데 이때 많은 寫經僧이 元에 徵用되어갔었고 또한 元의 將軍이 派遣되어와서 寫經을 써서 元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이 寫經殘卷도 對元關係의 寫經의 하나로서 國王發願인 만큼 金字院에서 寫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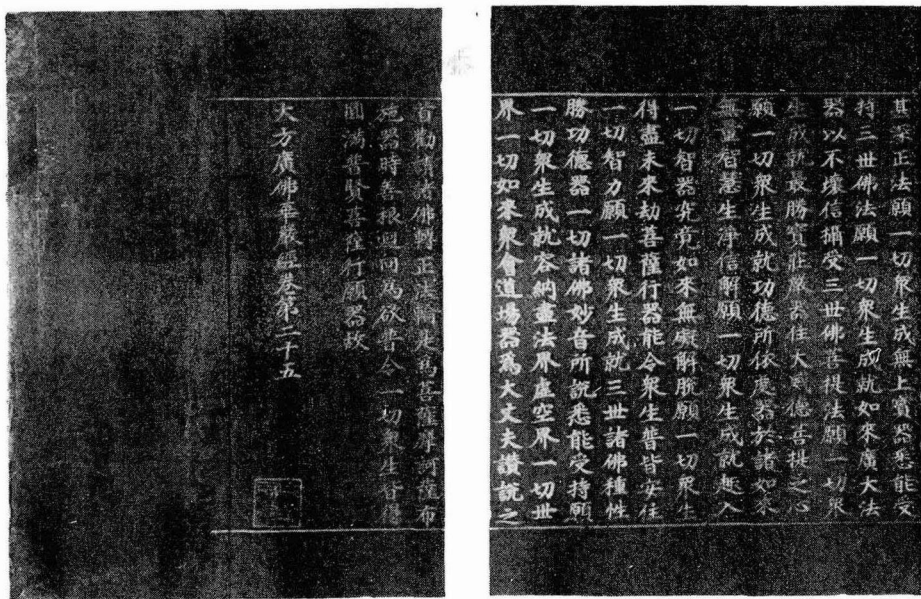


圖 6. 大方廣佛華嚴經

5 大方廣佛華嚴經七十一・七十二・七十三普賢行願品(圖 6, 7)

品質 紺紙金銀泥

形狀 折本、表紙에는 茶色雲形을 그리고 中央에 縱二〇・五センチ 橫三

센치의 紺紙에 銀泥의 複線框郭을 긋고 金泥로써 外題를 쓰다.

卷首書와 菩薩、如來、法、天等十二字는 金泥로 쓰다.

法量 縱三・一センチ 橫十一・一センチ

一페이지 六行 一行十七字

卷首書 金・銀泥描

縱二・四・八センチ 橫四・四・八センチ

卷第七十一의 內書

大方廣佛華嚴經第七十一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二(入界는 金泥書)

奧書 至元二十八年歲次辛卯四月八日光明禪師惠月謹題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一(金泥書)

怡暢^上以 鳩馱^上丁^下佐^功

卷第七十二

奧書에 惠月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음

跋文 長安終南山萬壽禪寺持光明禪師惠月隴西八也、九歲落髮波羅、一

踞荷蘭小寺、瞻禮道明大禪伯爲出世之師、且夕咨參、得發輝之印、

先遊塞北、後歷江南、福建路曾秉於權、嘉興府亦預爲錄首、忖念

縑之濫汰惟思佛法之難逢、捨梯己財、鋪陳惠施、印造十二之大藏、

剃度二八之僧倫、散五十三部之華嚴、捨一百八條之法服、書金銀

字八十一卷圓覺起信相隨、寫法華經二十八篇梵網金剛各部、集茲

勝善、普結良緣、皇恩佛恩、而願報無窮、祖意教意、而發明正

性、師毗盧之性海。

卷第七十三

卷第七一斗同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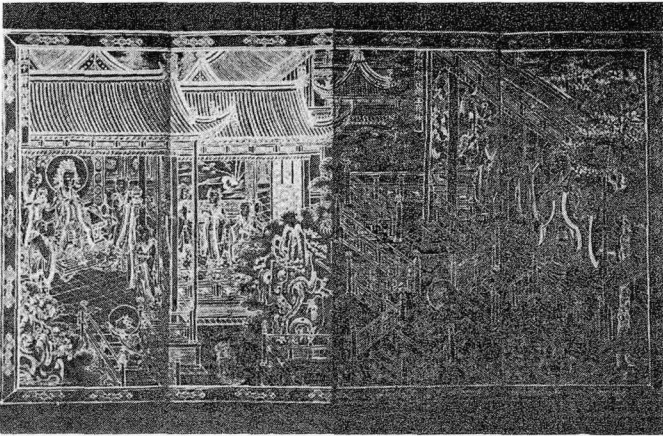
普賢行願品
卷第七十二、七十三과 同樣。 다만 變相圖 속에

杭州路奉溪界峯山畫工
沈鏡湖同男應祥繪畫
華嚴經像八十一卷

라는 款識이 있다.

時代 元
所藏者 京都國立博物館

守室「콜렉션」속에 들어 있던 이 寫經은 奧書에 의하면 至元二十八
年에 光明禪師惠月에 의해 寫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寫經은 그



寫經中有二夜神台大須精進力救護一切
衆王汝詣彼問菩薩云何教化衆生今趣阿
耨多羅三藐三菩提云何履淨一切佛刹不
同承事一切如來云何修行一切佛法時要
財童子頂禮其足繞無數匝慇懃禮拜
而去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二

巖合 古書 力 羅遊 上 竹 枝 扣 地 燄 裂
須 巖 娑 佉 枯 潤 暴 虐 惶 獨
捷 阜 舍 然

長安於南山萬善寺住持元明禪師惠月 隴西人
也九歲出家後歸一歸身蘭山寺嚴禮通明大禪伯
爲出世之師且夕空谷得發禪之印先遊秦北後歷
江南楊建路曾東於僧權嘉興府亦預爲錄百餘念
船衣之蓋次推思

佛法之難達捨持已財鋪陳息抱印蓮十二之天戴
別更二人之僧儉散五十三那之蓋藏給一百八條
之法服昔全銀字八十一卷圓書起信相隨寫法華
經二十八篇先開金剛各節恭茲勝善結良緣
皇恩佛恩而願報無窮用惠教意而發明正性師長
父母同蒙優渥之意舟法界衆生共欽

惠元于 年歲次 辛卯月 日 光明禪師 謹題

樣式에 있어 高麗寫經과 많이 닮아 있고 그 寫成된 年代가 至元二十八
年으로서 이는 忠烈王十六년부터 三十一年에 이르기까지 많을 때는百
名 적을 때가 三十五名의 高麗寫經僧이 元에 徵用당해 가던때의 作品인
만큼 여기에 함께 들어 論하고자 한다. 이 寫經이 寫成된 至元二十八
의 前年인 至元二十七年은 三月에 三十五人 至 四月에 六十五人이 徵
用당해 갔으며 八月에는 다시 元의 將軍趙滅을 파견시켜 高麗의 寫經僧
들을 元으로 끌고 갔다는 『高麗史』의 記錄으로 미루어 元으로 끌려간 高
麗寫經僧들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 여겨진다.

이에 관해 日本의 神田喜一郎氏는 『美術史』四〇號의 「中國의 裝飾經

圖 7.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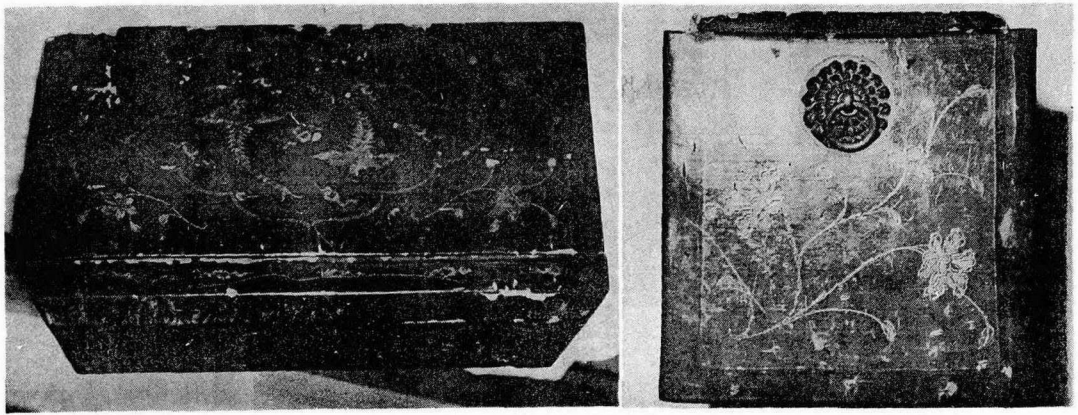


圖 8. 寶寺藏 法華經箱

「について」란 論文中에서 「이 寫經은 高麗의 古寫經과 닮았을뿐만 아니라 만약 惠月の 跋文과 變相에서 보여지는 款識이 없다면 아마 아무도 이 華嚴經을 中國의 古寫經이라고 認定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表紙에서 부터 모든 점이 高麗의 寫經과 類似하다 할지라도 卷首 畫의 變相은 高麗國內에서 寫成된 變相들에서 보여지는 극단적으로 圖式化된 것과는 달리 조금 餘白이 있고 風景的인 描寫가 눈에 띈다. 이와같은 점은 만약 이 作品이 元에 끝러간 高麗의 寫經 僧들에 의해 寫成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中國人들의 嗜好에 맞추어 製作된 것이 아닌가 라고 像想할 수가 있을 것이다.

以上은 高麗의 金字院·銀字院의 作品이거나 혹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는 作品들이다.

이와같이 金字院이나 銀字院에서 寫成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 高麗國王發願의 寫經 이외에도 現在 日本에는 상당수의 高麗寫經들이 흘러가 있는데 그 중에는 年記가 있는 꽤 높은 수준의 作品과 年記가 없어도 變相等에서 高麗寫經의 特徵을 곧 알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다음은 그와같은 作品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圖 9. 寶寺藏法華經

6 妙法蓮華經一部(圖 8、9)

品質 紺紙銀泥

形狀 折本、表紙는 金銀의 寶相華文、金泥의 卷首畫有、第一卷裏面에 第二卷、第三卷裏面에 第四卷、第五卷裏面第六卷第七卷의 裏面에는 「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가 寫成되어 있다. 「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에 또한 金泥의 卷首畫有.

法量 縱三〇·五センチ 橫一一·七センチ 天地一九·七センチ 法華經卷首畫는 縱二〇センチ 橫四四センチ. 彌陀經梵行品の 卷首畫는 縱二九·七センチ 橫二一·七センチ

奧書 伏爲

皇帝萬歲

國王千秋

佛日增明法輪常轉先區父母離苦

得樂兼及己身一門眷屬各脫

災殃同增福壽世生生常得吉祥見

佛聞法悟無生忍度諸有情方證菩提

之願情人家中敬寫成銀字

法華經一部金光明經四卷彌陀經梵行品各手

大悲心陀羅尼等經用資福利耳謹誌

至元三十一年甲午十二月日

功德主中正太宗簿令致仕 安節

安州郡夫人 李氏

同願

昌寧郡夫人 張氏

時代 一二九四年

所藏者 京都府 寶寺

이 寫經은 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の 奥書에 記載된 것과 같이 至元三十一年民間에 의해 寫成된 것이다. 안팎으로 繼續해서 쓴 것으로 「妙法蓮華經」 第一卷의 卷首書와 「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의 卷首書에서 보여지는 變相의 內容은 이보다 시대가 더 내려오는 작품들과는 약간 틀리는 점이 있다. 末期의 法華經變相은 대개 왼쪽에 說法圖를 오른쪽에는 經典의 說話나 傳說의 內容을 그리고 있는데 비해 이 法華經의 變相은 說法圖만이 그려져 있는데 四페이지 중 第一페이지에는 毘沙門天像만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銀字院의 作品인 앞에 「文殊師問菩提經」의 卷首書와 黃壽永博士所藏의 「不空羂索眞言經」의 卷首書 그 외 東國大學博物館의 「大方廣佛華嚴經」 四一卷의 卷首書에서 보여지는 天部の 單獨像의 영향이 아닌가 思料된다. 書는 高麗國王發願의 寫經에 比하면 많이 뒤떨어지나 年代와 發願者가 확실한 것으로서 年代測定の 基準이 될 수 있다는 點에서 意味있는 作品이라 할 수 있다.

「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의 卷首書역시 그 「모티브」에 있어 妙法蓮華經과 같다. 이 寫經에 있어 特記할만한 事實은 經箱이다. 梧木으로 만든 直四角

形의 이 經箱은 漆地沈金으로 뚜껑과 상자의 四面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前面과 背面 또한 뚜껑의 外緣에는 雙鳳凰雲芝雲이 한가운데 그려져 있고 그 四隅에는 牡丹이 그려져 있다. 또한 옆쪽의 兩面에는 牡丹이 그려져 있고 金屬의 장식이 달려 있다. 상자의 밑바닥에는 杉나무로 새로 잘아 넣었다.

이 經箱의 크기는 縱 一六·四センチ 橫 三七·五センチ이다.

7 佛說大報恩經

品 質 紺紙金泥

形 狀 折本、表紙는 金銀泥의 寶相華文樣이 그려져 있다. 卷末缺損·

裏面에는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多羅尼經」이 寫書되어 있다.

法 量 縱三一·四センチ 橫 一一·六センチ 天地 一一·五センチ 한 페이지

六行 一行十七字

所藏者 京都府 寶寺

이 寫經의 앞의 妙法蓮華經과 함께 經箱속에 保管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는 卷末의 表紙부분이 떨어져 年代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禿氏祐祥氏의 論文 「高麗寫經について」(寶雲二十五號)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跋文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伏爲聖壽天長國民一、又爲先亡父母親緣、七世師親、法界含靈、悉脫苦趣、同生安樂、聞法悟道、次及己身離諸災難、此報此報盡時、生生世世、同生一處、不離三寶助揚佛事、供養衆具、皆悉滿足廣度有情、同歸覺岸者耳 庚戌衆具 皆悉滿足廣度有情、同歸覺岸者耳 庚戌四月 日敬書

施主 比丘 妓淑

同願 比丘 信全

日精

이 庚戌年을 禿氏는 一二五〇年으로 보고 있으나 妙法蓮華經과 書體가 갖고 卷首書의 「모티브」가 같은 것으로 봐 一三一〇年의 庚戌이라고

여겨진다.

8 妙法蓮華經七卷本一部(圖10)

品質 紺紙銀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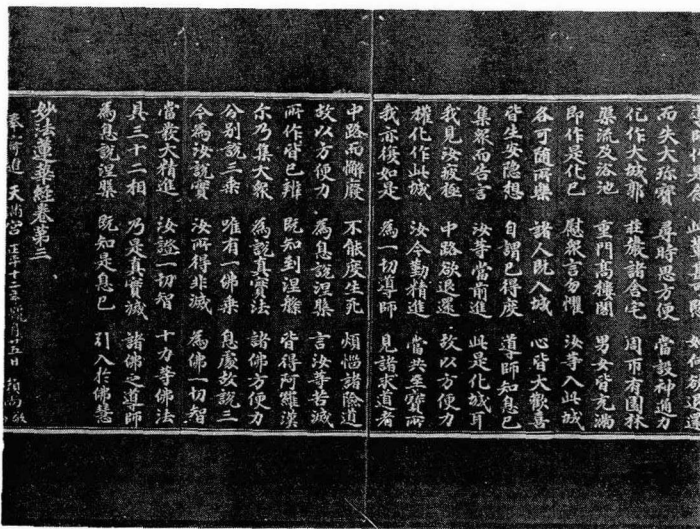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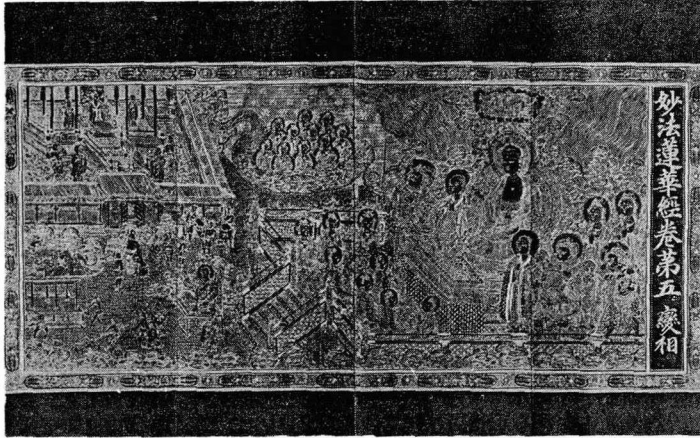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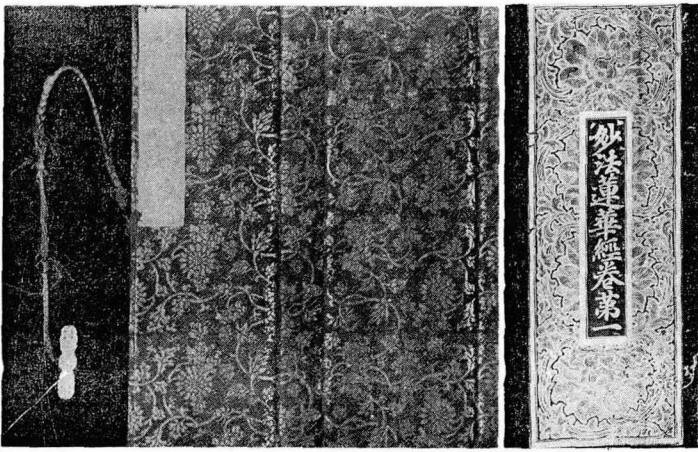
形狀 折木, 表紙는 厚紙의 金銀泥寶相華文 天地는 二重의 金界線 各

卷에 卷首畫有. 各卷經文部紙數를 金泥書로 表示.

法量 堅三一·八센치 橫一〇·八센치 天地二〇·三센치 한「페이지」

六行 一行 十七字

奧書 卷第七에는 다음과 같은 寄進銘이 있다.



「發願偈

妙法蓮華經豚豚經典

金泥寫成願不淺

願此一部七大卷

諸佛會中隨佛現

開示衆生佛知見

發願息影沙門

施財

重財

淵鑑

圖 10. 妙法蓮華經

重大匡劉 成吉

掌合朱 暉

監門衛錄事朴 中漸

至元六年庚辰六月日 柏巖 聰古書

第七卷의 裏面에 別筆의 施入名이 다음과 같이 併여 있다.

「比經者淨室妙安大姉曾所納于

龍泰禪寺也頃年零落邊境寬

爲可惜矣今緣活樞和尚之請而

尋思 國家禱尔不要乃與法施

再奉納于平安山者也

寬文三年十二月良辰

枝吉利左衛門順之敬白

法名泰譽宗徹

居士

또한 各卷의 끝에는 施入銘과도 틀리는 書體로

「奉奇進 天滿宮

金字妙法蓮華經一部七卷

右爲現瑞二世所願成就乃

至法界有情同圓種智者

正平十二年歲次 臘月二十日

從五位上行前大宰少貳兼兼後守藤朝臣賴尙白^敬

時代 一三四〇年

所藏者 佐賀縣立博物館寄託品、鍋鳥家所藏

이 寶經은 第四卷이 缺本이긴 하지만 法華經七卷本으로서는 卷首畫

즉 變相이 六卷에 全部있고 또한 正確한 年記가 있는 것으로서 法華經

變相研究에 意味 있는 作品이라 할 수 있다.

奧書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至元六年^⑥ 즉 高麗忠惠王元年(一三四〇

年)에 寫成된 것으로 이것이 十七年 후인 日本의 正平十二年(一三五七年)

에 太宰府天滿宮 ^⑦에 寄進되었다가 寬文三年(一六六三年)에 枝吉利左

衛門順에 依해 佐賀領主였던 鍋鳥家에 再施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達筆의 書과 鐵線과 肥瘦線을 사용하여 細筆로 그린 纖細華麗한 卷首

畫는 高麗寫經中에서도 보기 드문 秀作이다. 空白 없이 극도로 圖式化

된 卷首畫는 왼쪽에는 釋迦說法圖를 오른쪽에는 각각 그卷의 내용에 해

당하는 佛說話와 傳說 혹은 經典의 直接的인 內容이 그려져 있는데 그

纖細、華麗함이 極致에 達하고 있다. 이와 같은 內容의 作品으로써는 國

立中央博物館所藏인 紙本墨書의 妙法蓮華經卷第二、三、四、七卷(變相金

泥)과 紺紙金泥의 妙法蓮華經五卷 白紙金泥의 妙法蓮華經第六卷 등을 들

수 있다.

풍요한 얼굴과 표정과 휘날림이 있는 옷자락의 표현은 高麗佛畫에서 보

여지는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寫經은 紫、綠、青色의 비단실로써 經帙에 싸여 있었는데

이 經帙은 高麗의 織物研究에 가치있는 作品이 되리라 믿는다. 經帙의

表面에는 牡丹、菊、唐草文樣을 넣어서 짚으며 안쪽에는 菱格字(卍)를

넣어 짚다. 帙의 한쪽 모서리에는 비단실로 짠 끈이 달려 있고 끝에는

象牙의 장식품이 매달려 있다.

그리고 이 寫經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書者 聰古인데 최근

「龍天集芳」第二集 ^⑧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英國의 「빅토리아·앤드·

알바트」博物館이 所藏하고 있는 「佛說阿捺陀經」一冊의 書者가 또한 聰

古로 되어 있어 聰古는 그 당시 寫經僧으로 상당히 名聲을 떨치던 사람

이 아닌가 여긴다. 이 「佛說阿捺陀經」은 紺紙金泥로써 至正元年五月에

寫成되었다는 奧書가 있어 「妙法蓮華經」七卷一部를 寫成한 바로 이듬해

에 寫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9 妙法蓮華經經(圖 11)

品 質 紙本墨書

形狀 表紙는 紺紙金銀泥寶相華文이며 題字는 紺紙金字·卷首書는 金泥書

法量 縱三八·八センチ 橫一四·二センチ 한 페이지 六行 一行 一七字
 奧書 大元至正五年乙酉九月 日

無住庵沙門

天雲誌

「朱方印」

「朱方印」

所藏者 日本唐津市鏡神社

이 寫經의 法量은 타기전에는 대개 縱四〇·一センチ 橫十五センチ 정도가 아니었다 믿어진다. 奧書의 記錄과 같이 一三四五年에 寫成되었다. 卷首書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풍요로운 얼굴표정과 휘날리는 衣文에서 忠惠王年問의 寫經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상이 年記가 확실한 寫經들이다.

다음은 年記가 없지만 그 表紙 혹은 書體卷首書 등의 樣式的인 特徵으로 봐서 高麗의 作品이라고 推定되는 作品들이다.

10 佛名記(圖12)

品質 紺紙銀泥書

形狀 卷本, 表紙는 金, 銀의 寶相華文, 卷首書는 金·銀泥, 佛名의 上部에 金泥로 그에 해당하는 佛像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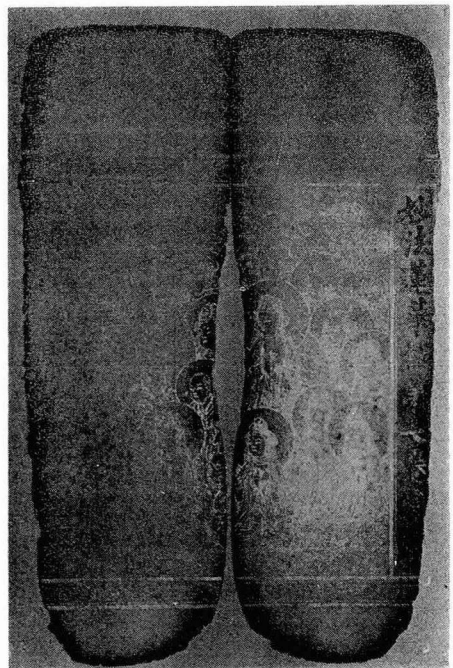


圖 11. 妙法蓮華經燒經

法量 二八・八センチ

時代 高麗

所藏者 京都市加藤兵衛氏藏

이 寫經은 그 形狀이 古格의 卷本일 뿐만 아니라 卷首畫의 釋迦眷屬 圖가 아직 圖式化되기전의 描法 즉 繪畫의이며 佛畫의인 요소를 띄고있 어 年代가 꽤 올라가리라 여겨진다.

各南無佛의 이름 위에는 그에 해당하는 圖像이 그려져 있다.

유연한 휘날림의 衣裾와 풍부한 얼굴표정 등에서 高麗佛畫의 特徵이나 타나고 있다.

11 妙法蓮華經卷第五

品質 白紙銀泥

形狀 折本、表紙는 銀泥唐草文樣・卷首畫有

法量 縱三〇・五センチ 橫一一・二センチ

한「페이지」六行 一行十七字

이 寫經은 奧書가 없어 그 年代의 확실함을 알 수 없으나 卷首畫로 미 루어 봐서 앞에서 말한 京都府寶寺의 妙法蓮華經과 같은 年代의 것이 아닐까 본다. 즉 卷首畫가 처음 두 페이지에 毘沙門天만이 크게 그려져 있는 점이 寶寺의 것과 많이 닮았다. 제二「페이지」의 三분의二정도부분 부터 第四「페이지」에 걸쳐 四角形의 구획속에 釋迦三尊을 中心으로 諸 菩薩이 그려져있다. 얼마 가지만 해도 京都瑞光寺가 소장하고 있었다

12 妙法蓮華經四(圖13)

品質 紺紙銀泥

形狀 折本、表紙金銀泥寶相華文、天地金掛線

法量 總三枚、縱二九・六センチ 橫一一・八センチ

所藏者 日本京都國立博物館(守屋콜렉션)

卷首畫도 奧書도 없어 확실한 年代 추정은 힘들으나 규격과 書體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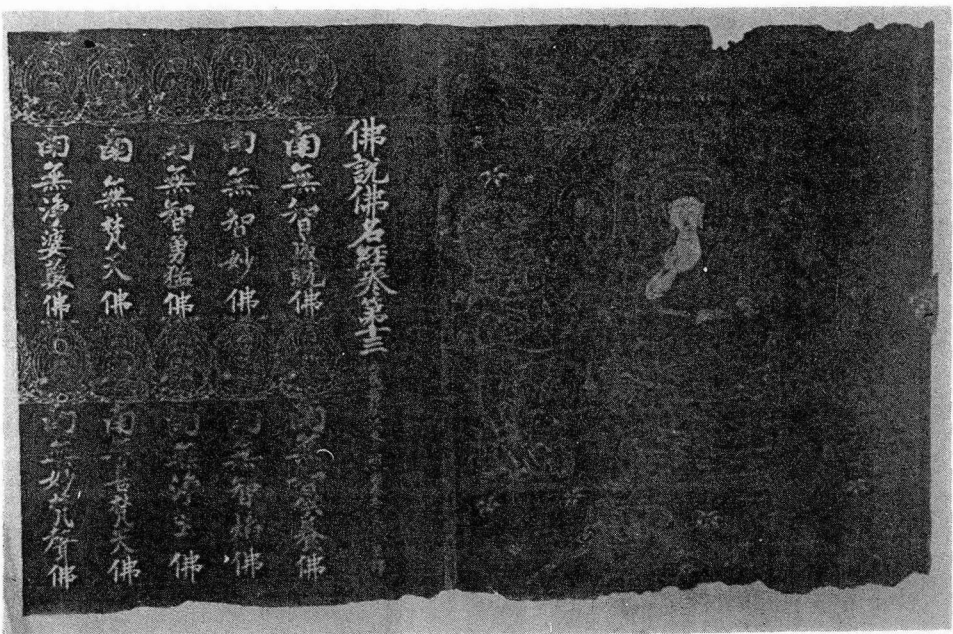


圖 12. 佛 名 記

아 高麗寫經으로 여겨진다.

13 華嚴經普賢行願品

品 質 白紙金泥

形 狀 折本 表紙는 金銀泥寶相華文

法 量 縱三一センチ 橫一一センチ(七二一センチ)

한「페이치」六行 一行一七字

所藏者 日本京都國立博物館(守屋클레션)

이것 역시 卷首畫 奧書없어 확실한 年代 알수없으나 규격과 表紙 등으로 高麗것으로 推定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14 妙法蓮華經卷第五

品 質 紺紙金泥

形 狀 卷本

法 量 縱三〇·三センチ 橫三八〇センチ

奧 書 妙法蓮華經第五

八臣之祝

工 固 現 世 況 臣 崔 瑞 偏 受

工 恩 者 甚 矣 祝 之 誠 益 倍 於 他 人 者 哉 故 當 主 工 之 厄 年 辛 亥 祕 特 情 書 手

寫 成 蓮 經 七 軸 伏 願

殿 下 無 疾 病 歟 長 守 貴 也 亨 國 千 秋 波 及 己 身 嘉 耦 現 增

福 壽 富 生 安 養 先 主 父 母 法 界 四 生 同 霑 樂 利 耳

所藏者 京都國立博物館

이 寫經은 奧書로 이루어 와서 高麗忠宣王三年 즉 一三二一年 前濟州

牧使였다가 忠肅王때에 宣誠守節匡輔功臣 鐵原君이된 崔瑞의 發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高麗史」世家卷

第三十 忠烈王二十一年條에 「四月癸丑, 以判秘書省事崔瑞, 爲濟州牧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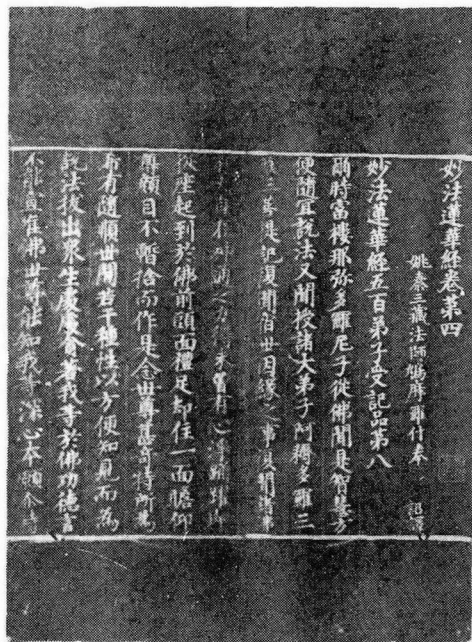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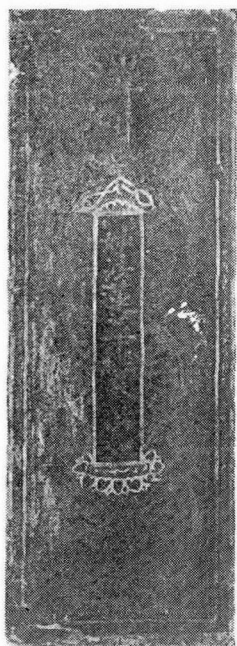


圖 13. 妙法蓮華經

란 記錄과 또 忠肅王條에 「己卯, 以崔瑞, 爲宣誠守節匡輔功臣鐵原君」이
란 記錄으로부터 崔瑞가 忠烈, 忠宣, 忠肅 三代에 걸쳐 武人으로써 활
약하여 鐵原郡의 위치에 까지 오른 人物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만큼
奧書의 干支 辛亥는 一三二一年 즉 忠宣王三年이란 것을 알 수 있다.

15 大方廣佛華嚴經第四十四(圖 14)

品 質 褐紙銀泥書

形 狀 折本, 表紙缺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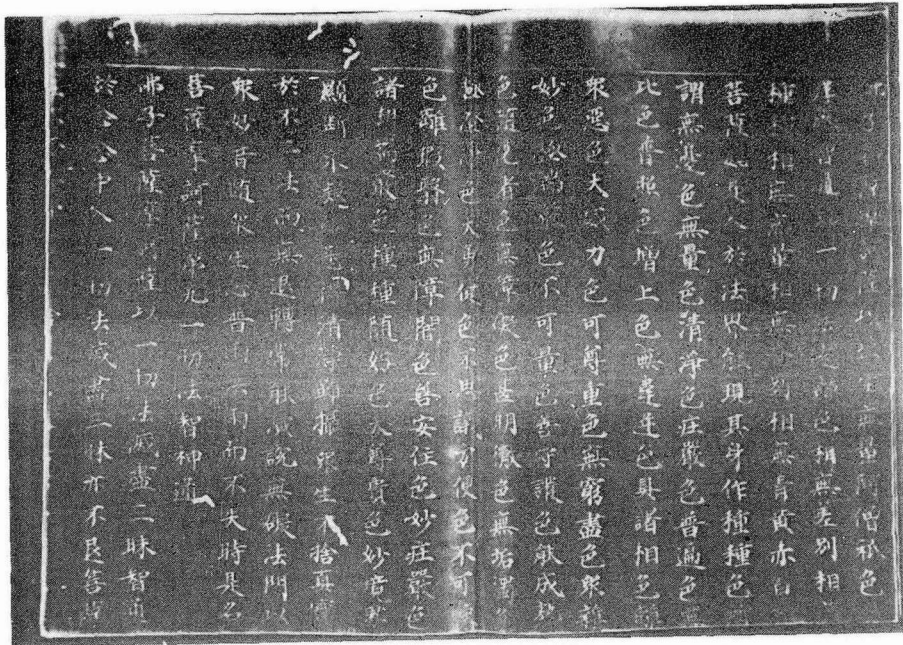


圖 14. 大方廣佛華嚴經

法量 縱三一・六センチ 橫一二センチ 天地二三・六センチ 한페이지 六行 一行 一七字

所藏者 京都市左京區南禪寺

이 寫經은 상당히 傷해 있는 상태다.

卷首書는 勿論 表紙도 없이 확실한 것은 알수없으나 寫經의 규격과 書體로써 高麗寫經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16 大盤若波羅密多經卷第二百五 一辰三

品 質 紫紙銀泥書

形 狀 折本、表紙는 金銀泥寶相華文

法 量 縱三一センチ 橫一一センチ 한페이지 六行 一行 一七字

所藏者 浮羽郡田主丸町 觀音藏

이 寫經 역시 表紙와 規格에서 高麗의 것으로 推定할 수가 있다.

17 大方廣佛華嚴經第三十五、三十六

品 質 紺紙金泥

形 狀 折本、表紙는 金銀寶相華文、卷首書有

法 量 縱三一・〇センチ 橫一一センチ 한페이지 六行 一行 一七字

所藏者 大和文華館

이 寫經은 佐賀縣立博物館에 寄託되고 있는 鍋島家の 妙法蓮華經七卷 本一部와 二卷首書의 樣式이 가장 많이 닮은 作品이다. 左側에는 釋迦 說法圖가 右側에는 華嚴經의 內容이 그려져 있는데 地雲과 일출 등의 描 法이 거의 같고 空間을 보이지 않고 극히 圖式化된 證들이 같은 年代의 것이 아닌가 史料된다.

18 辰妙法蓮華經第二

品 質 紺紙銀泥

形 狀 折本

法量 縱二九・六センチ 橫一二・八センチ 天地二〇・六センチ 한 「페이지」六行 一行一七字・總二五開

이 寫經은 表紙缺損으로 年代를 알길 없으나 日體와 規格 등으로 高麗寫經임을 알 수 있다.

以上이 年代가 不確實한 銘記가 없는 作品들이다. 이 以外에 日本內에서는 李朝시대의 寫經도 상당히 여러점 있는데 이것은 高麗時代의 것으로 誤記되거나 혹은 日本의 作品으로 誤傳되고 있다.

이와 같은 李朝의 寫經들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다.

〈註〉

① 이와 같은 事實은 「高麗史」중의 記錄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먼저 八萬大藏經에 관한 記錄을 살펴 보면 太祖十一年에 「新羅僧洪慶·自唐閩府·航載大藏經一部·至禮成江·王親迎之·置于帝釋天院」

夏四月庚寅、韓彥恭、還自宋、獻大藏經、王迎入內殿、邀僧開讀、下敎文科宗十年에는

「癸亥正月、幸眞觀寺、轉新成華嚴般若經」

文科十年과 十二年에는 板經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木板印刷技術에 관한 記錄으로 「西京留守報、京內進士明經等、諸學人所業書籍、率皆寫傳字乖錫多、請分賜秘閣所藏九經、漢晉唐書、論語、孝經、子史、諸家文集醫卜地理律算諸書、置于諸學院」命有司各印一本送之(二十年)

「忠州牧、進新雕黃帝 八十一難經、川玉集、傷寒論、本草括要、小兒單氏病源、小兒藥證、病源十八論、張仲卿、五藏論、九十九板、詔置秘閣」(十二年) 이와 같은 記錄으로 木板印刷技術의 발달을 짐작할 수 있다. 계속해서 文宗十七년에는 「三月丙午、契丹、送大藏經、王、備法駕迎于西郊」 文宗三十七년에는 大藏經道場이 세워지니 「己丑、命太子、迎宋朝大藏經、置于開國寺、仍設道場」이란 記錄이 있다.

宣宗四年

「三月甲午、幸開國寺、慶成大藏經略已未王、如興王寺、慶成大藏經」

肅宗六年

「幸洪圓寺、落成大藏經及九祖堂略設藏經道場于會慶殿、御制慶讚詩」

同十年에는

「幸神護寺、設大藏經繪、以落之、自闕庭至寺、來路點燈數萬、庚戌又幸是寺行香」

睿宗二年條에는

「遷、遣高存壽、來賀生辰、仍賜大藏經」

高宗三十八年條에는

「幸城西門外大藏經板堂、率百官行香、顯宗時板本、燬於壬辰蒙兵、王與群臣、更願立都監十六年功畢」

忠烈王二十一年

「辛未、親轉藏經于康安殿」

至 列傳卷第三宗至

「陶獻釋典及經書一千卷、又於興王寺、秦置教藏都監、購書於遼、宋、多至四千卷、悉皆刊行、如創天台宗、置于國清寺、已而南遊、偏歷名山後退居海印寺」

列傳卷第六 韓彥恭條

「宋以彥恭、儀容中度、授金紫光祿大夫檢校兵部尚書兼御史大夫、彥恭奏請大藏經、帝賜藏經四百八十一函凡二千五百卷、又賜御製秘藏詮道遙蓮心輪」

列傳第十 韓冲條

「崔弘嗣將隨尹觀伐女眞、誓佛會、功若成創大藏堂于開國寺、及還、私令將輸材、冲與左正言任元潛劾奏王諭止之、冲固乞罷、左遷爲西京副留守」

列傳卷第四十二 崔忠獻條

「嗣子侍中沆、遜道家業、匡君制難、大藏經板、施財督役、造成慶讚、中外受福」

또한 金·銀字院에 관한 記錄을 高麗史중에서 살펴 보면

文宗十二年條에

「冬十一月庚午、制、靖宗魂堂金銀器、及北朝帛祭物繪綵、以化成藏經、追福靖宗」同三十一年에는 「三月甲寅、幸興王寺、轉新成金字華嚴經」

肅宗六年에는

「辛日月寺、慶成金字妙法蓮華經」同七年에는 「幸玄化寺、慶讚銀書瑜伽顯揚論」

毅宗十年에는

「王、女興王寺、轉華嚴經、初、王、無嗣、寫妃金氏誓、若生子、當金銀字華嚴經四部、及元子生、寫成二部、修興王寺弘教院、藏之、改額弘眞、大設法會、以落成」

明宗十一年에는

「正月辛亥、寫經院、火、先是、命寫成銀字藏經、公私競納錢財、而助之、無賴輩欲盜其物、因火之」
忠烈王條九年에는

「王寫公主、飯僧于金字大藏經院」同王十五年에는「辛金字院、慶讚大藏經、」
同十六년에는「帝、以寫金字經、徵善書僧、乃遣僧三十五人如元」 또 같은 해 四月에는「遣寫經僧六十五人如元」 八月에 다시「遣將軍趙瑊、押寫經僧、如元」 同王二十三年「元、遣使、徵寫經僧」 또 二十八年에 「元、遣別帖木兒等、來徵寫經僧」 三十一年에 다시 「元、遣忽都不花求、求寫經僧、選僧一百、以遣之」

忠宣王條二年에는

「元、遣宦者方臣祐來、監書金字藏經、皇太后、送金簿六十錠」 同王三年「元、皇太后、遣鎮魯花、來賜鈔五千八百錠、賞寫經」 또 同王四年에는 「命書金字藏經于旻天寺、追福母后」
忠肅王元년에는

「王、訪僧萬恒于銀字院」

② 一九六六年十月十三日韓國의 慶州佛國寺釋迦塔의 第二層塔身으로부터 나온 「無垢淨光大陀羅尼經」(A D 七六四年)과 日本의 「百萬塔陀羅尼經」(A D 七七〇年)과 seta氏가 中國의 敦煌에서 發掘하여 英國에 가지고 간 「金剛般若波羅密經」(A D 八六八年)

③ 延曆寺藏의 紺紙銀字의 紺紙銀泥法華經. 五島美術館의 紫紙金字華嚴經卷第六十四. 岡村隆造所藏의 紺紙銀字華嚴經第一. 和歌山龍光院藏 紫紙金字金光明最勝王經. (分國寺經이라고도 함.) 東京 町和子藏 紫紙金字金光明最勝經卷第二. 奈良博物館藏 紫紙金字金光明最王經. 勝神奈川今淵セフ藏 紫紙金光明最勝王經卷第七. 兵庫 黒川古文化研究所藏 紫紙金字金光明最勝王經卷第三. 大阪 藤田美術館藏 紫紙金字華嚴經卷六十二. 東京大東急記念文庫 紫紙金字華嚴經卷六十一.

④ 煨煌의 千佛洞壁畫중 法華經變相의 八區劃의 그림변화는 法華經 八卷本의 內容을 그린 것으로 高麗의 變相이 왼쪽에 釋迦說法圖를 그린데 비해 千佛洞壁畫는 가운데 聖象을 그리고 있지만 그 주위에 法華經의 說話를 그린 내용이 비슷하다.

⑤ 이것은 東國大學博物館所藏으로 경기도 安城郡清源寺에서 發掘한 것인데 그 그림의 성격이 黃壽永博士所藏의 高麗國王發願의 「不空羅索眞言經」과

달랐다.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發行 東洋學第五輯參照要)

⑥ 元의 至元年間이 들 있는데 하나는 一二六四年부터 一二九四年까지 즉 世祖대이며 또 하나는 一三三五年부터 一三四〇년까지로 여기의 至元六年은 一三四〇年이란 것을 干支로써 알 수 있다.

⑦ 大宰府天滿宮에 奇進되었다는 점은 당시 大宰府天滿宮이 學問神을 모시는 장소였던 만큼 高麗와의 정식교역관계에 의해 渡來되었다는 점을 日本의 學者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一三五十年년은 恭愍王六年으로 왜구의 침입이 잦을 때인 만큼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

⑧ 滿山龍泉堂의 創業七十周年記念集

(參考文獻)

- ① 高麗史
- ② 檀國大學校附設東洋學研究所刊 東洋學第五輯의 黃壽永「安城清源寺의 高麗寫經」
- ③ 高裕燮著「朝鮮美術文化史論叢」
- ④ 松本榮一著「煨煌畫の研究」
- ⑤ 日本文化廳監修 毎日新聞社刊「重要文化財」20
- ⑥ 寶雲二十五號
- ⑦ 大和文華館刊「大和文華」五〇號
- ⑧ 熊谷宣夫著「朝鮮佛畫徵」 (慶北大學校博物館근무·美術史專攻)

日本에 現存하는 高麗 寫經들

一番 連號	名 稱	品 質	形 狀	法 量	卷 首 畫	年 代	所 藏 者
1	大 寶 積 經	紺紙金泥	卷 本		菩 薩 散 華 圖	1006年	個 人
2	文 殊 舍 利 問 菩 薩 經	紺紙銀泥	現 折 本 (본래 卷本)	25.8×25.8cm 總一十二開 一開十四字	金 剛 力 士	1276 "	京都市 小川廣己 藏
3	佛 說 雜 藏 經	紺紙金泥	單 簡	卷本 十六行과 奧書 五行을 표기한 것		1284 "	個 人
4	大 方 廣 佛 華 嚴 經 卷第七一, 七二, 七三, 行願品	紺紙金銀泥	折 本 表紙 茶色 雲形	31×11cm 一開十二行 一行一七字	各卷變相圖有 變相의 法量 24.8×44.8cm	1291 " 元	京都國立 博 物 館
5	妙 法 蓮 華 經 七卷本一部	紺紙金泥	折 本 表·裏兩面書	30.5×11cm 一開 十二行 一行一七字	第一卷說法圖과 毘沙門天· 第七卷 裏面에 說法圖	1294 "	寶 寺
6	佛 說 大 報 父 母 恩 重 經	"	折 本 卷末缺損	31.4×11.8cm 天地 215cm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無	1310 "	"
7	妙 法 蓮 華 經 五	"	卷 本	30.2×380cm 一行十七字	"	1311 "	京都國立 博 物 館
8	阿 育 太 子 法 益 壤 目 因 緣 經	紺紙銀泥	" 表紙銀泥 唐草文	29.5×2080cm 一行十四字	"	1325 "	"
9	妙 法 蓮 華 經 七卷本一部	紺紙金泥	折 本 第四卷 이 缺本 表紙金銀泥寶相華文	31.8×10.8cm 一開十二行, 一行十字	各卷 變相圖有 變相法量 20.3×43.2cm	1340 "	佐 賀 館
10	妙法蓮華經七卷本一部(燒經)	紙本墨書	折本·表字 金泥書	38.8×14.2cm	各卷金泥의 變相有, 細金泥	1345 "	鏡 神 社
11	佛 名 記	紺紙銀泥	卷本·佛名위에 그에 해당하는 圖像有	縱 28.8cm	釋迦卷屬圖 金銀泥描	高 麗	個 人
12	妙 法 蓮 華 經 五	白紙銀泥	折本·表紙銘泥唐草文	縱 30.5cm 橫 12.2cm	釋迦三尊과 諸菩薩을 四角形의 구획속에 그렸고 第一페이지는 毘沙門天	"	瑞 光 寺
13	華 嚴 經 普 賢 行 願 品	白紙金泥	卷本·表紙金銀泥의 寶相華文	31×11cm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無	"	京都國立 都 博 館

14	妙法蓮華經	紺紙銀泥	折本・表紙金・銀寶相華文 天地金掛	29.6×12.8cm 總一三枚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	"	"
15	法華經斷片	白紙金泥	折本	39.1×12.5cm 天地 24cm(총九페이지)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	"	"
16	大方廣佛華嚴經四四	褐紙銀泥	折本・表紙缺損	31.6×12cm 天地 23.6cm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	"	南禪寺
17	大般若波羅密多經	紫紙銀泥	折本・表紙金・銀泥 寶相華文	31.0×11cm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	"	浮羽郡 觀音寺
18	大方廣佛華嚴經三五卷三六卷	紺紙金泥	折本・表紙金銀 寶相華文	31×11cm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華嚴經變相圖	"	和館 大文華
19	妙法蓮華經二	紺紙銀泥	折本・表紙缺損	29.6×12.8cm 天地 20.6cm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無	"	京都市 小川廣巳

日本에 現存하는 李朝寫經들

1	大方廣佛華嚴經二五	紺紙銀泥	折本・表紙金 銀泥寶相華文	36×13.3cm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無	李太	朝宗	京都國立 博物館
2	妙法蓮華經 八卷本一部	"	折本・表紙金銀 泥寶, 相華文, 天地線 金泥線	31.6×10.9cm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第一卷釋迦着屬圖 第二多寶塔第三卷九重寶塔第七 四五卷十二重寶塔第六卷第七 卷, 五重塔第八卷蓮上위의觀音	李宣	朝朝	佐賀博
3	能淨一切眼疾病 陀羅尼經	紺紙金泥	倭原・裝折本裝 漢字와 한글 을 併記	9.3×128.6cm 一開十四行 一行十一字	釋迦 着屬圖 9.3×18.5cm	壬亂	前	福岡市 文化課
4	天尊玉樞寶經	紺紙金泥	折本	10.7×8.95cm 總一十六開 一開十行 一行十字	釋迦三尊이 二開에 걸쳐 그려짐	李朝	中期	
5	說相十六觀經	紅紙金泥	折本・經文中에 觀想圖가 그 려져 있음	37.2×11.4cm 天地 27cm	說相十六圖가 經文中에 그려 져 있음	李朝	初期	知恩院
6	大方廣佛華嚴經 六七, 六八	白紙墨書	折本・表紙木板	31.3×25cm (總一二開) 一開十六行 一行十七字	無	李朝		京都國立 博物館
7	寫經斷片	紺紙銀泥	折本	36.4×81.8cm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	"	"	"
8	妙法蓮華經七	紺紙金泥	" 表紙紺色 麻張	30.3×11.2cm 一開十二行 一行十七字	"	"	"	"